일체돼야 하는 믿음 세 개

(로마서 1:16~17)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일체돼야하는 믿음 세 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일체 돼야하는 믿음 세 개'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대해 절대적인 이해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자신들의 생각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쓰셨다는 증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6~17절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다면 뜻이 분명했을 텐데 바울은 왜 굳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다양한 설명을 참고하였습니다만 마음에서 뚜렷한 깨달음과 동의가 느껴지는 해석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면서부터 이 말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저 나름의 깨달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출발지를 의미하고 두 번째 믿음은 방향과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름 아닌 복음이 이렇게 믿음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객관적인 특정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의

지와 관계없이 맹목적 믿음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표명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될 때에만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입장표명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 또한 믿음입니다. 17절에서 세 가지 의미의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니 난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개의 믿음은 일체되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복된 소식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 개가 일체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개의 믿음의 의미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에 등장한 두 개의 믿음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 앞서 나온 16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복음 사건이 먼저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났음으로 인해 생겨난 순서를 정의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예언한 구약 성경과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도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먼저가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믿음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구약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부터'라는 뜻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일상에서 함께하시는 분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시편이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묘사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심지어 참새 두 마리가 푼돈에 팔리기 위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주관하시고 백합화가 피었다 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을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확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즉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목적지로써의 믿음입니다.
남녀 간의 소개팅으로 비유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소개팅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 전해 듣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가정형편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듣고 괜찮다고 여겨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로는 만날 수 없고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논리와 가르침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이러한 가르침이 가리키고 있는 실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는 있으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등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주선 받고 상대에 대한 소개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는 곧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 가족이 강릉에 오셨습니다. 아빠 엄마 딸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을 20년째 하고 계시고 딸은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국에서 감기가 걸린 줄로만 알았는데 잘 낫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렴으로 인해 폐가 거의 다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둔 사진을 직접 보니 정말로 폐가 다 사라지고 한 10%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똑같이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소속된 총회에 연락을 드려 선교사님들의 연락망을 통해서 기도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을 보냈던 딸이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나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너무 회복이 빨라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딸의 폐에 대한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샤워를 할 때에도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을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없는 상상을 하게 되고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할지 막막한 느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편 아내도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셨는데 딸의 병을 알게 된 순간 사뭇 다른 생각이 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알고계시고 사랑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니 이 일도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셔서 하나님께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으셨답니다. 딸이 중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다가 폐렴에 걸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감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모두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분들이었지만 남편 분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딸의 폐가 10% 남았다는 사실만이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음을 두고 허탈해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내 분께서는 십자가 복음방송에서 강조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딸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딸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해주신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오랜 세월의 믿음의 과정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해야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두 사도가 여러분만큼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잘 몰랐던 사도들은

성경을 잘 아는 우리로써는 엄두도 못내는 큰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르쳐지고 소개되고 묘사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단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정작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일체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되고, 철야기도나 금식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이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이 내 마음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절대적인 의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평가하고 선언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마구잡이로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호에 맞는 방식으로 마음이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복음이고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방식인 복음을 통해 소개받은 믿음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장인 장모님의 첫 만남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첫 만남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만남은 호남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은 영남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목포에서 큰 문방구를 하시던 집안의 맏아들이셨습니다. 완도에 살던 아가씨를 소개받아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본 곳은 반지하의 다방이었다고 합니다. 창문 쪽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아가씨의 콧등에 머무는데 그 아름다움에 반하셔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장모님의 햇살 비추는 콧등이 장인어른의 마음에서 의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한편 저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서 경남 진영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교편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창녕에 살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고 만나기 위해 창녕으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립문 앞에서 "여보세요!"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다 젊은 남자가 서 있는걸 보고 놀라서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가씨가 당황

해서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햇살 비추는 콧등과 신발 벗겨지는 귀여움이 있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글로써 소개되고 묘사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복음 안에는 나를 하나님 눈에 의롭게 여기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돈 문제 등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선적인 일은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소개받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기에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에 오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도달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나의 삶과 생명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올바르고 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받아서 믿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도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문제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해결을 바라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믿음의 단계로 갈 때에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된 마음을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해줍니다.

한편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지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여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곧 강자가 법이고 정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우리에게는 백세 건강,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재력, 부흥의 숫자, 외모, 지위, 신분, 명품 등이 숭상되는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가 숭상되고 있기에 복음은 부끄

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은 항상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처지가 바로 나의 모습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원로원의 귀족이든 군인이든 시민이든 노예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앞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나 개인의 참 현실이라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만들어낸 가장 비참한 사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현실로 믿으라고 주장하는 복음은 강자가 법과 정의로 믿어지던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재수생 시절에 달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방 두 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한 방은 부모님이 쓰셨고 다른 방은 중풍에 걸리신 할머니와 제가 썼습니다. 하루는 다니던 교회 분들이 밀가루 두 포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물을 길어다 먹어야 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었고, 권사님이라는 할머니는 중풍에 누워계시고, 집사님이라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그 찌든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토록 부끄러울진대 복음은 나의 처해있는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모욕과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매순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써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면 대체 직장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 복음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사오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장모님의 햇살 받은 콧날처럼 어머니의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당황하시던 모습처럼, 우리를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처지를 나의 처지와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결혼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요소입니다.

16절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이란 곧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막연하게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대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군사력을 통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Pax Romana)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군사력으로 강제된 평화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능력을 마음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정신이 숭상하던 어떤 가치도 마음에서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이 세상 전체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오류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겨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1등하나,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나 관심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서 1등을 하더라도 세상에 속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형경기장에서 노예들이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들의 싸움에서 1등을 하더라도 여전히 주인의 노예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사장 자리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들과의 싸움에서 1등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통해 소개받아 믿게 된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지배해서 평화를 강요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돈이나 자녀 혹은 건강을 비롯한 세상의 문제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에서의 매임에서 풀려날 때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항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십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지구 밖으로 나오셔서 지구상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늘로 내 마음을 끌고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도 하나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믿음이 표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세 개의 믿음이 일체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은 단순히 그리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야만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이나 각자의 삶의 형편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수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어떤 신관이나 철학자나 사상가도 실제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어떤 나라나 민족에게도 이러한 길은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이 드려짐으로써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해주는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공부가 아닌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대로 첫 번째 출발점인 믿음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배은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직접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죽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흔히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사건과 동일시합니다만 실은 이신칭의의 사건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삼위일체 되심에 나를 포함한 사위일체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은 이신칭의를 포함하는 사위일체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이 일어난 이신칭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

신 자리까지 이어지며 사위일체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삶에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첫 번째 현실로 붙잡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반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부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무오류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세상을 마주할 때에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이해됩니다. 몸이 아픈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고, 딸의 폐가 녹아내렸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사건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곧 나의 현실임을 믿는 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말씀으로 들어 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개가 일체되어야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소개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만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햇살이 비추는 콧등과 같이 예쁘게 여기시고 신발이 벗겨져 허둥대는 귀여움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안에서 세 개의 믿음이 일체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